

이슈

2

2018년 4월 4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2811호

내가 왜 떴게?

YG 떠나 YNK엔트로, 꽃길만 걷게나



이종석

이종석 : 연기력과 비주얼을 완벽 장착한 한류스타 이종석이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다. 몸담아 온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YNK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았다. 이종석은 최근 1인 기획사 격인 매니지먼트사 A-man을 설립했다. YNK는 이 A-man과 함께 이종석의 국내의 모든 활동의 매니지먼트를 책임진다. YNK에는 신혜선, 김현주, 김인권, 이주영, 스테파니 리 등이 소속되어 있다. 새로운 결정과 도전 앞에 꽃비가 내리길. 아참, A-man은 ‘에이맨’으로 읽는다. ‘아맨’ 아니다.

남의 집값은 오르는데, 우리 집은 왜?

서울 주택 평균가 6억원 : 6억원 돌파. “와! 대단해”할 일이 아니다. 서울 주택 평균가격이 3월 기준 6억273만원으로 2008년 이래 처음으로 6억원을 돌파했다는 얘기다. 왜 2008년인가 하면, 통계가 공개된 것이 2008년부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역대 최초의 6억원 돌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난달 7억원대에 올라선 영향이 컸다. “우리 집값은 그대로인데 왜 남의 집만 오르지?”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분노와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에는 요가의 코브라 자세가 좋다고 한다.

“평생 우주 강의를 할 순 없었어요”



이소연

우주인 이소연 박사 : 2008년 한국인 최초로 우주선 소유즈 TMA-12를 타고 우주국 제정거장(ISS)에 갔던 이소연 박사가 3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마이크로중력학회 초청 강연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박사는 미국행을 택한 이유에 대해 “평생 우주와 관련된 강연만 하며 살 수는 없었다”라고 했다. 이 박사는 2012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떠나 MBA(경영학 박사)를 따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6년이나 흘렀지만 이 박사의 행동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적지 않다. 이른바 ‘우주 먹튀’ 논란이다.

이번엔 일본 모기…한국은 괴로워!

일본뇌염주의보 : 날이 풀리나 싶더니 벌써부터 뇌염주의보가 발령됐다.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된 것이다. 다행히 물려도 99%는 증상이 아예 없거나 열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 경우 20~30%가 사망에 이른다. 고 하니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지난해에는 9명의 환자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중국은 미세먼지와 황사, 일본은 뇌염모기라니. 중간에 낀 대한민국은 참 살기 어렵다. 그나마 뇌염모기 이름이 지나치게 귀여워 불만이다. 낯고칙칙하롱가모기라고 하든지.

LPGA 역사에 남을 명승부 | 박인비 ANA인스퍼레이션 준우승의 의미

‘1박 2일’ 8차 연장 저력…인비가 돌아왔다



박인비(오른쪽)가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에서 끝난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 8번째 연장전에서 아쉽게 패한 뒤 우승자 페르닐라 린드베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 LPGA

린드베리와 메이저 최장 연장전
2016년 7월 후 20개월만에 톱3
박인비 “올 시즌 경기력에 만족”
세계랭킹 1위 탈환, 힘차게 시동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역사를 수놓는 명승부였다. 하루를 넘겨 계속된 ‘1박2일’ 연장전. 비록 ‘골프 여제’는 마지막에 웃지 못했지만 세계랭킹 3위 도약이라는 값진 선물을 얻었다.

올 시즌 완벽하게 부활한 박인비(30·KB금융그룹)가 피 말리는 접전 끝에 아쉬운 준우승을 거뒀다. 그는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파72·

6763야드)에서 끝난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총상금 280만 달러·한화 약 29억 원)에서 페르닐라 린드베리(32·스웨덴)와 무려 8차 연장이라는 진검 승부를 펼쳤다. LPGA 메이저대회 역사상 가장 오래 걸린 연장전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전날 최종라운드였다. 박인비가 17번 홀(파3)과 18번 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낚으며 앞서 15언더파 273타 단독 선두로 경기를 마친 제니퍼 송(29·미국)을 따라잡고, 린드베리가 역시 18번 홀을 버디로 마무리하면서 세 명이 공동 선두를 이뤘다.

연장전은 18번 홀에서 서바이벌 방식으로 펼쳐졌다. 첫 탈락자는 제니퍼 송이었다. 3차 연장에서 박인비와 린드베리가 버디를 잡은 반면 제니퍼 송은 파에 그쳐 3위가 됐

다. 이제 1대1 승부만 남은 상황. 그러나 현지시간 오후 7시가 넘어서며 어느덧 어두워진 하늘이 문제가 됐다. 이동식 조명으로 4차 연장을 치렀지만, 돌이 파로 비기면서 대회 주최 측은 결국 연장 승부를 다음날로 펼치기로 결정했다.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 재개된 연장전 역시 팽팽하게 전개됐다. 박인비와 린드베리는 10번 홀(파4)~17번 홀(파3)~18번 홀(파5)을 돌며 이어진 5~7차 연장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약속이나 한 듯 모두 파를 기록했다.

그리고 펼쳐진 운명의 8차 연장. 다시 10번 홀로 돌아온 둘의 희비가 갈렸다. 린드베리가 약 7m 거리의 장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하며 승기를 잡았다. 위기에 몰린 박인비

는 5m 버디 퍼트를 시도했지만 공이 홀 입 왼쪽으로 빗나가고 말았다. LPGA 투어 통산 20승, 메이저대회 통산 8승, 올 시즌 2승이 모두 무산됐다.

박인비는 LPGA와의 인터뷰에서 “8차 연장 승부는 나도 처음이었다. 비록 우승을 거두진 못했지만 올 시즌 경기력이 상당히 만족스럽다. 린드베리의 첫 우승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값진 성과도 있었다. 대회 직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박인비는 6계단이 오른 3위(6.40점)를 기록했다. 2016년 7월 이후 약 20개월만의 ‘톱3’ 복귀다. 이로써 2015년 10월을 끝으로 내려놓은 세계랭킹 선두자리 탈환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3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예술인 합동공연 ‘우리는 하나’를 관람한 북측 관객들이 출연진의 ‘우리의 소원’ 합창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서현의 ‘푸른 버드나무’…北관객들 ‘핸즈 업’

〈북한 노래〉

윤상 감독이 밝힌 평양공연 뒷얘기

분위기 고조시킨 곡은 ‘뒤늦은 후회’
김정은 위원장, 백지영 열창에 관심

역사적인 공연인 만큼 뒤따르는 이야기도 다양하다.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예술단이 1일과 3일 평양에서 공연을 벌였다. 호호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공연에 북측 인사들도 만족스러운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측예술단 윤상 예술감독은 첫날 공연을 마친 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털어놨다.

윤상은 2일 밤 평양 고려호텔에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서현이 북한 노래 ‘푸른 버드나무’를 부를 때 북측 관객들 손이 다 올라갔다”며 “나도 눈물이 났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더 준비할 걸 싶었다”고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가왕’ 조용필부터 걸그룹 레드벨벳까지 다양한 매력의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지만 북측에서 특

히 뜨거운 반응을 얻은 곡과 가수가 있었다. 북한에서도 유명한 남매듀오 ‘현이와 덕이’의 ‘뒤늦은 후회’는 공연을 분위기를 고조시킨 곡으로 꼽혔다. 윤상은 “남측 노래 가운데 (북한에서)인기가 너무 많은 노래라고 한다”며 “옛날 곡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니까 다른 가수들보다 최진희 선배가 부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첫 날 공연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가까운 자리에서 공연을 지켜본 윤상은 “위원장님은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쳤고 특히 YB가 부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의 편곡에 대해 많이 궁금해 했다”고도 했다. 북한에서도 유명한 곡인만큼 새롭게 편곡된 노래를 궁금해 했다는 설명이다.

인터뷰에 함께 참여한 남측예술단 단장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가수 백지영을 따로 언급할 정도로 높은 관심도 보였다. 도종환 장관은 “위나 열창을 하니 백지영 씨를 특별히 언급했다”며 “노래가 신곡인지, 남측에서 어느 정도의 가수냐고 물어왔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신혼 탓인가?

BK, 잠수함 피칭 보여주지 그랬어!

AZ우승멤버 김병현 다저스전 시구
AZ, 오버핸드 투구에 진한 아쉬움

현역 시절 ‘잠수함 투수’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김병현(39)이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다시 섰다. 김병현은 3일(한국시간) 후배 류현진(31·LA 다저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 필드에서 열린 LA 다저스-애리조나 전 시구자로 나섰다. 현역 때 투구폼과 달리 오버핸드로 볼을 던졌다. 애리조나는 구단 트위터를 통해 “아쉽게도 잠수함 투수의 동작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평했다.

1999년 애리조나 유니폼을 입고 바리그에 데뷔한 김병현은 2001년 애리조나의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다. 김병현은 구단 트위터를 통해 진행된 인터뷰에서 “2001년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루이스 곤잘레스가 끝내기 안타를 쳤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며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오른쪽 넷째 손가락에 끼곤 했지만 지금은 집에 전시해 놓아 거의 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병현은 또 “선발투수로 메이저리그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팀의 결정을 존중해 구원투수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불펜투수로 너무 많은 경기에 등판해 복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학익 기자 ing17@donga.com